



■이성부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

1942년 광주 출생... 남도는 문학적 토양

고 3째 옛 전남일보 신춘문에 등단

현대문학상·영랑시문학상 등 수상

‘빈산 뒤에 두고’ ‘야간산행’ 등 작품 남겨

이성부 시인, 그의 글에는 남도의 슬픔과 절망이 있었다

“육체는 슬프다”라고 누가 시로 썼던가. 그 육체는 이제 세상에서 사라졌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육체를 세상에 남아있는 육체들이 슬퍼한다.” <지난 2010년 후배 조태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인 이성부가 쓴 글 중>

28일 타계한 고 이성부 시인은 서정적인 시어로 현실 참여적인 시를 써왔고, 그의 글에는 전라도의 슬픔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련기사 7면>

그의 문학적 토양은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남도였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고 3학년이던 1953년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했고, 문예장학생으로 경희대 국어국문과에 입학했다.

광주에서 글 잘 쓰는 고등학교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김현승·조병화·황순원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을 스승으로 맞아 시의 길을 걷게 됐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문예반 활동을 하며, 1960년 교지에 후배들이인 문순태·민용태·조태일 등과 함께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시절에는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서울 회기동의 허름한 막걸리 집에서 문우들과 문화를 이야기했고, 1961년 현대문학에 시 ‘백주’ 등을 투고해 추천을 받았다.

암울한 시절 그는 자주 김현, 최하림, 이탄 등과 함께 텔런트 최불암씨의 모친이 운영하던 명동의 술집 ‘은성’과 청진동 일대의 막걸리집을 드나들며 울분을 달랬다.

생전 그는 “당시 우리는 모이면 민중의 억압과 소외, 사회적 모순, 냉전 논리 따위를 극복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해 고민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69년 봄 한국일보에 기자로 입사했고, 죽는 순간까지 찌그러진 막걸리 주전자를 달아 놓고 입맛을 다셨다는 북한산

자락의 김관식 시인(작고)의 집에서 신경림·조태일 등과 막걸리를 마시며 시를 갈망했다.

그해 300부 한정판으로 간행한 첫 시집 ‘이성부 시집’으로 제15회 현대문학상을 받는다.

또 1974년 민중시편과 연작시 ‘백제’가 실린 두 번째 시집 ‘우리들의 양식’을 냈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작가회의) 창립에 참여해 유신체제를 거부하는 문학인 선언에도 서명했다. 70년대 그는 초기 모더니즘적 작품 경향에서 벗어나 현실참여시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는 한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산행을 하면서 절망과 슬픔을 달래곤 했다. 이런 변화는 1989년 시집 ‘빈산 뒤에 두고’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어 산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자기 성찰은 ‘야간산행’ 등의 시집을 탄생시켰다.

지난 2001년에는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쓴 시들을 모은 ‘지리산’을 냈고, 2010년에는 아홉 번째 시집 ‘도둑산길’을 펴냈다. 이들 시집은 전통적 서정을 바탕으로 시대적 반성이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간암으로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던 그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이라는 것은 올 때마다 새롭고 오래 다닐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이, 오래 쓸수록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의 세계와 비슷하다”면서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하면서 견기를 통해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느리게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호남 문단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강진에서 열린 9회 영랑시문학상 분상 시상식이었다. ‘도둑 산길’로 분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는 강진을 찾았고, 지역 후배 문인들과 짧은 인사도 나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긴 기다림... 순간의 감동

광주사진동호회원전, 내달 1~7일 금호갤러리

사진의 미학은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순간의 감동이다. 그렇게 추위를 뚫고 떠오르는 태양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갈매기의 움직임이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지역 최대 사진 모임 중 하나인 광주사진동호회(회장 김용배)가 오는 3월 1~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8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용배·강용선·박상진·박용휴·문방진·황경부·김용대·이상수·한영진·김선영씨 등 회원 77명이 참여해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김용배씨는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산과 강을 배경으로 평화롭게 세월을 낚고 있는 강태공을 포착했다. 한적한 풍경과 유유히 흐르는 물살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또 문방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씨는 구름과 하늘, 떠오르는 해와 요트, 바다를 황금비율로 한 화면에 담은 작품을 선사한다. 요트의 뾰족한 돛과 동그런 해의 대비, 일출로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른 바다의 색 대비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밖에 강용선씨는 살아 움직이는 듯 산자락을 감고 흘러가는 구



김용배 작 ‘Lake Wolfgang’

름의 생동감을 선사하고, 이상수씨는 붉게 물든 나뭇잎과 고요히 흐르는 사냇물을 환상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현재 3천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광주사진동호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사진 야외 촬영 행사를 열고, 초보자를 위해 기초사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10-3625-11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춤 추는 LED... 그림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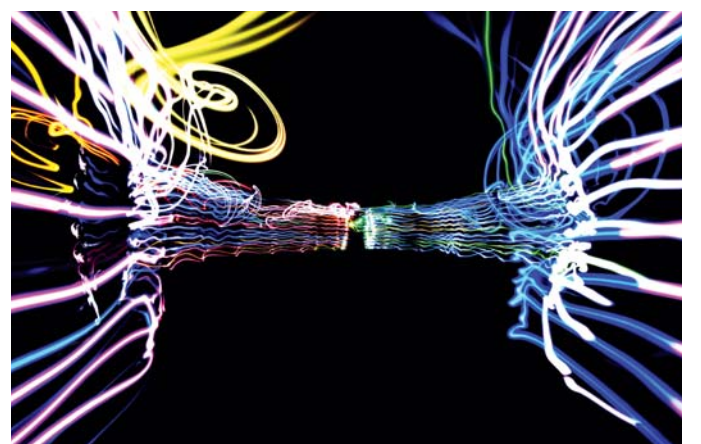
진시영 개인전, 내달 9~22일 은암미술관

춤 추는 무용수의 몸에 LED 조명을 붙여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낸 뒤 이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가 오는 3월 9~22일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진씨는 ‘FLOW - 새로운 회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움직임에 빛을 매달아 춤사위의 흔적을 또렷하게 화폭에 재현한 작품을 선사한다.

LED특수인상을 입은 무용수를 초저속 캠코더를 이용해 찍은 뒤, 강렬한 색채를 다시 그려낸 작품들이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 프랫 대학원



‘FLOW’

에서 영상을 전공한 진씨는 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 작가로 참여했으며 하정운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조선대 미술대 학장을 지낸 고(故) 진양욱 교수의 아들이다. 문의 062-231-52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포럼 주제·일정 확정

‘문화와 기술, 그리고 창의성’

8월 20~22일 김대중센터서

아시아 문화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2012 아시아문화포럼’의 일정과 주제가 확정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28일 “이번 아시아문화포럼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창의성(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을 주제로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주간’(8월 18일~26일)의 메인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문화포럼은 ▲아시아와 창의성 ▲아시아 창의도시와 네트워크 ▲창의도시 광주와 잠재력 등 3개의 세션포럼 형태로 진행된다.

또 국내외 참가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아시아청소년문화축

전’과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행사’ 등도 개최된다. 아시아문화포럼 집행위원회는 투쟁한 위원장(전남대 교수)을 비롯해 조선대 황병하, 이승권, 김하림 교수, 광주대 이명규 교수, 광주발전연구원 정성구 박사 등 7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아시아문화포럼은 지난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시작한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면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 및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축제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062-670-74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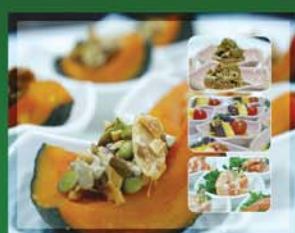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 · 일 · 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 · 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